하느님 이름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의 신원과 생명의 의미를 표현한다.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은 타인에게 자신을 알리는 것이다. 남이 나를 더 깊이 알 수 있고 내 이름을 부르게 함으로써 나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이름을 통해 당신을 알리셨다. 이제 하느님의 이름을 알아 보면 ;

1> 엘(EL), 또는 엘로힘(Elohim)

'앨'은 '엘로힘'의 고대 표현이고 시적(詩的)표현이다. '다스리는 이, 강하신 이'란 뜻이다. 이 이름은 우리들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보통명사로서, 일반적으로 신성(神性)을 지칭하는 동시에 어떤 때는 고유명사로서 단 한 분뿐이신 하느님을 지칭하기도 한다.
하느님은 당신을 나타내실 때마다, 이렇게 부르시길 원하셨다. 이 이름은 "너의 아버지의 하느님(탈출 3,6),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탈출 3,15), 너희들의 하느님(탈출 6,7), 자비와 은총의 하느님(탈출 34,6), 너희 하느님"(이사 41,10) 또는 간단하게 "하느님" (1열왕 18,21,36-37)을 연상시킨다.

구약의 성조들은 "엘 엘리온(창세 14,22), 엘 로이(창세 16,13), 엘 샬다이(창세 17,1), 엘 베텔(창세 75,7), 엘 올람"(창세 21,33)등 '엘' 뒤에 여러 형용사를 붙여 불렀다. '엘리', 또는 '엘 로이'는 엘 로힘의 변형으로서 '나의 하느님'이란 뜻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하고 부르짖으셨다. '엘'을 어미에 붙여 만든 이름도 있다. 예를 들어 보자. 미카엘(누가 하느님과 같으냐?), 라파엘(하느님이 낫게 하셨다), 가브리엘 하느님의 영웅), 임마누엘(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등이다.

2> 야훼(YHWH Ayahweh)

고대 이후 모세시대에 와서 하느님은 당신을 "야훼"라고 자신의 이름을 알려 주신다. 불타는 덤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하고 말하면 그들이 '하느님의 이름이 무엇이냐?'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분은 '나는 곧 나다'라고 하시는 그분이다'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선조들의 하느님 야훼이시다. 이것이 영원히 나의 이름이 되리라. 대대로 이 이름을 부러 나를 기리게 되리라.(탈출기 3,13-15)" 옛날 구약 성서는 "나는 곧 나다"를 "나는 존재하는 자로라". (Ego Sum, Qui Sum : 탈출기 3,14) 라고 변역했다.

그러므로 야훼라는 뜻은 "나는 나다. 나는 존재자체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 이름을 알려주심으로써 하느님은 당신이 누구이시며, 어떤 이름으로 당신을 불러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의 신성하심에 대한 경외심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하느님의 이름을 감히 글로 옮기지 못하고 단지 'YHWH'라고만 표기했다. 후대에 와서 이를 두고 발음상 문제가 생겨 '여호와, 여호수아'등으로 발음했으나 '야훼'로 발음하는 것이 정설이다. 따라서 여호와는 틀린 말이거나 사투리로 알면 된다. 성서를 읽을 때 계시된 하느님의 이름은 '주님'(아도나이, 그리스도어로는 퀴리오스)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읽었다.

[동양적 개념]

1> 일반적인 천공신(天空神)의 개념

하느님은 우리 말로는 하늘, 한자어로는 天의 존칭어인데, 광활하고 높은 창공은 절대자의 상징으로서 인류 종교 현상 중에서 가장 보편된 것이다. 종교학자들은 고대인들이 하늘이나 땅을 단순한 현상이나 물체로 예배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나타나는 신적인 힘을 보고 그 거룩함의 신성을 경외한 것임을 나타내었다. 서양에서는 태양신도 섬겼는데 천공신과 태양신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되어 태양은 어디까지나 하늘 밑에 종속되어 있다.

2> 중국의 天 개념

중국의 고유한 사상에서 天, 天道, 天理의 개념이 최고신 내지 절대 원리로서 나타난다. 오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신의 개념도 여러 가지로 바뀌는데 공통적으로는 하늘을 '상제(上帝)'라고 표현하면서 인격을 부여했다. 시경(時經)에 보면 천공신으로서의 천을 조물자로서 "하늘의 높은 산을 만들었고 위대한 문왕은 그것을 다스린다."라고 하였고 [주송(主頌), 천작(天作)] 주재자로서 "하늘이 모든 백성을 낳으시니, 사물이 있는 즉 그 안에 원리가 있다" [대웅(大雄), 탕(蕩)과 증민(烝民-온백성)] 그러나 높은 하느님의 일은 소리도 없고 냄새로 없어서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에 인간이 알아보기 어려운 면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3> 우리나라 신 개념

고려 말부터 주자학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위에서 살펴본 복합적인 유교의 天 사상이 한국인의 의식 속으로 들어 오는데 전혀 거부감이 없이 수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한국인의 종교 전통 안에 天 사상이 뿌리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 최초의 하느님 신앙의 삼국유사 등에 실린 왕국의 시조 신화 등에서 비롯된다.
결국 한국 신화들에 보이는 최고신은 천공신, 곧 하느님이며, 단군, 고구려의 주몽, 신라의 박혁거세, 석탈해, 김알지의 탄생 설화에게도 나타난다. 이들은 하늘에게 '상제의 명령'이나 '알, 궤'라는 형식을 빌어 탄생한다. 그래서 그 주인을 공경키 위해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 경천행위가 생겨난 것이다. 한국의 신 개념을 알려면 무속 신앙 속에 내려온 하느님과 한국 유학자들 속에 하느님 연구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무속 신앙에서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많은 신을 가지고 있으나 그 배경으로 하느님이라는 최고신 개념을 막연하게나마 가지고 있었다. 마태오 리치 신부는 '천주실의'에서 유교경전에 나오는 상제 혹은 天이 그리스도교의 하느님과 같은 절대신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여 야훼를 '天主'라 번역했다. 이를 연구한 조선의 철학자 '이익'은 "천주는 곧 유가 상제이다"라고 평했다. 이 근본적인 공통점이 그리스도교가 짧은 시일 내에 한국인의 심성에 깊이 뿌리박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그 후 천도교의 인내천(人乃天), 증산교의 구천상제(九天上帝), 대종교의 한열신 등은 한국의 전통적인 하느님 사상을 각기 다른 표현으로 수용한 것이라 하겠다.
(이상은 가톨릭 대사전, 1235쪽)

[천주, 하느님, 하나님]

'천주, 하느님, 하나님'에 대한 용어를 살펴 보기로 하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들을 역사 과정을 통하여 완성으로 이끄시는 초월적 절대자를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는 천주라는 명칭으로 초기부터 사용해왔다.

중국에서는 처음 천주라는 말을 채택하여 쓰게 된 연유를 보자. 천주의 중국음의 '도사(徒斯)'이다. 한역본 <성경직해>에 천주라는 말 풀이로서 "천주는 서양의 원어로는 '도사(徒斯)'라고 하며 천주 만물의 주님이시다."(天主西土原文曰 徒斯及天地萬物之主)라 하였다. 여기서 '도사(徒斯)의 중국식 발음을 프랑스어 철자로 적으면 teou sou 즉 라틴어의 'Deus(데우스)', 희랍어의 (테오스)'의 발음과 비슷하게 된다. 중국에 온 선교사 마태오 리치 신부가 <천주실의>를 출판하면서 천주를 'Deos'의 음역으로 넣어 사용함으로써 알려지기 시작했다.

하느님의 명칭은 선사 시대 아래 우리 민족 종교 생활의 기층을 형성하는 무교에서의 최고신인 '천신, 하느님' 명칭과 부합한다. 이 명칭은 '하늘의 님'이라는 말로부터 유래한 데에서 일컬어진다. 하느님의 호칭은 통일 신라 및 고려조에 이르러 삼국 시대의 까-딪-빛 삼신의 사상을 한데 묶어 한잎이라 한 듯하고, 고려조에 이르러 천지 신명을 호칭할 때 님을 붙여 인격화하여 한잎님이라 한 듯 하며, 조선조에 들어와서 한다님이라 호칭하기에 이른 것이다. 말하자면 하느님의 명칭은 '까-딪-빛-한잎님-한다님-하느님'의 변화 과정을 겪으며 형성되었다. 이것인 차차 가톨릭에서 '하느님'으로 고착되었다. 유일신의 뜻으로 하나님(개신교), 큰 울타리, 큰 나 즉 온 세상이라는 우주적 개념으로서의 한울님(천도교), 단군의 경칭이며 배달민족의 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한얼님(대종교)등 모두가 나름대로의 풀이를 갖고 있으나, 역시 '하늘님'이라는 말에서 온'하느님'만이 우주 창조자이며 주재자이신 천주의 호칭으로 보다 친숙하고 적절한 우리 말임을 알 수 있다.

하느님과 하나님은 어떤가?

우리는 위와 같은 이유로 하느님이라고 쓰고 있는데 반해 일부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국어 학자들에 의하면 하나님이 적절치 않다는 것으로 다음의 이유를 든다.

<첫째로> 어원적으로 하느님은 하늘 + 님의 합성어이다.
국어에서 'ㄹ받침 + 님'의 경우 'ㄹ'이 대부분 생략된다. 아들 + 님 = 아드님, 딸 + 님 = 따님, 하늘 + 님 = 하느님이라 했다. 하나님이라고 고집하려면 주기도문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하날에 계신 ...'으로 고쳐야 한다.

<둘째로> '님'은 인격자나 신격화된 사물에만 붙일 수 있다. 임금님, 홍길동님, 햇님, 달님 등이다. 그러나 존경의 대상이 안 되는 집이나 자동차에서 '집님, 자동차님'이라고 할 수 없다. 더구나 하나, 둘, 셋이라는 수사에 인격을 부여할 수 없다. 하나님, 둘님, 셋님은 말이 안 된다. 그렇다면 조사에도 '님'자를 붙일 수 있어야 하는데 '는, 이, 가'에 '는님, 이님, 가님'은 말이 안 된다. 개신교에서는 천주교를 유일신교로 보지 않고 마리아와 성인 성녀를 다 믿는 다신교로 오해 한데서 "우리는 천주교화 같지 않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다." 고 하나님을 고집하고 있다.

<셋째로> 하나님은 표준어가 아니다. 북한 사투리이다. 하날(하늘), 오날(오늘) 등이 그것이다. 애국가에도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하느님이라 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국어학계에서 '하나님'이란 용어를 하나의 고유명사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천주교 서대문 교회 (2003)